

주요 선진국 해외직접투자 현황 및 정책시사점

I. 조사 목적

□ 주요 국가의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우리나라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바람직한 전략 방향과 정책 시사점을 도출

- 해외투자는 산업공동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현지시장 진출, 수출 증대 등의 효과가 있어 선진국은 지속적으로 해외투자를 확대

* 투자 비중('10년말) : 선진국 82.3%, 개도국 15.3%, 체제전환국 2.3%

* 전 세계 해외투자잔액 : 20조 4,083억불

- '10년말 기준 세계 해외직접투자 잔액의 50.5%를 차지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최근 해외투자를 크게 확대하고 있는 중국의 투자 현황을 조사

주요 국가의 해외직접투자 잔액

(억불)

국가	'90	순위	'00	순위	'10	순위
미국	7,318	1	26,940	1	48,433	1
영국	2,293	2	8,978	3	16,893	2
프랑스	1,124	5	9,259	2	15,230	3
독일	1,516	4	5,419	4	14,213	4
일본	2,014	3	2,784	7	8,311	8
중국	46	25	278	24	2,976	18
한국	23	32	215	26	1,390	25
전 세계	20,942	-	79,622	-	204,083	-

자료: UNCTAD

II. 미국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1. 투자 현황 및 추이

□ 세계 최대의 투자 실행국으로서의 지위 견지

- '10년말 기준 투자잔액은 4조 8,433억불로 투자 비중은 전 세계의 23.7%에 달하며, 이는 투자 상위국 2~4위에 해당하는 영국, 프랑스, 독일의 투자잔액 합계보다 더 큰 규모임.

□ 해외와의 경제성장률 차이, 인플레이션 및 이자율 격차 등의 영향으로 대내외 투자 변화

- '90년대 중반에는 미국의 높은 경제성장률과 저물가가 외국에 의한 대 미국 투자를 촉진하였으나, '02~'07년은 미국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해외직접투자가 외국인 투자를 2배 이상 초과

□ 금융위기 이후 투자 감소하였으나, 타 선진국 대비 견고

- '10년 중 투자금액은 3,289억불로 전년대비 16.3% 증가하였으나, 역대 최고치인 '07년의 3,935억불에 비해서는 16.4%* 감소

* 동 기간 중 전 세계의 투자는 39.2%, 선진국의 투자는 48.9% 감소

미국의 최근 5년 해외직접투자 추이

	(억불, %)				
	'06	'07	'08	'09	'10
투자잔액	44,703	52,750	31,024	43,309	48,433
GDP 대비	8.5	14.8	11.9	13.6	15.5
투자액	2,242	3,935	3,083	2,827	3,289
GFCF 대비	33.3	37.4	21.4	30.5	33.0
직접투자수지	129	-1,776	-19	-1,298	-1,007

주) 1. GFCF(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 장기간에 걸쳐 생산에 반복·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고정자산의 취득

2. 직접투자수지 = 대내직접투자(Inward FDI) - 대외직접투자(Outward FDI)

2. 지역 및 산업별 특징

□ 전통적으로 서유럽 선진국 중심의 투자

- '10년말 잔액 기준의 지역별 투자 비중은 북미 7.6%, 유럽 55.9%, 아시아·태평양 15.6%, 중남미 20.8% 등

* 상위투자국 : 네덜란드, 영국, 캐나다, 룩셈부르크, 버뮤다

- '90년대 후반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이러한 경향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다가, 금융위기 여파로 선진국 비중이 다소 감소

- '10년 중 아시아·태평양이 172.3% 증가, 유럽이 7.5% 증가한 반면, 중남미와 아프리카는 각각 25.7%, 3.9% 감소

□ 비제조업 중심 투자 기조

- '10년말 잔액 기준의 산업별 투자 비중은 비금융 지주회사 39.4%, 금융보험업 22.7%, 제조업 15.0%, 도소매업 5.0% 등

- '10년 중 제조업이 29.8%, 전문과학기술업이 84.6%, 지주회사가 30.8% 증가하고, 금융보험업은 61.0%, 광업은 28.9% 감소

3. 해외투자 관련 정책

□ 대내외 직접투자에 관련해 대체로 중립적인 정책 시행

- '77년 지미 카터 행정부는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정책강령을 통해 미국은 국제 투자의 유입 및 유출을 권장하지도 반대하지도 않겠다는 “중립 조항(neutrality clause)”을 발표

- 현재까지 동 기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미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관련된 해당국의 규제를 줄임과 동시에, 미국 내에서는 외국 투자자들에게 법률상의 평등한 대우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어 국제 협상 주도

Ⅲ.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1. 현황 및 추이

□ 투자 잔액은 '10년말 기준 8,311억불로 세계 8위¹⁾에 해당

- '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사상 초유의 엔화 절상으로 수출채산성 악화를 극복하기 위한 생산기지 이전과 M&A 투자 증가
- '90년대~'00년대 초반까지 다소 주춤하였으나, '00년대 중반부터 일본 기업의 국제 경쟁력 저하 극복 위해 신흥국 진출 확대
- '10년은 563억불 투자로 전년대비 24.7%, '07년 대비 23.5% 감소하였으나, '11년에는 신흥국 진출 전략과 대지진 이후 공급망 붕괴와 전력 부족으로 기업의 해외진출이 가속화되며, 전년대비 84.6% 증가한 9.1조엔(1,143억불 상당) 기록

일본의 최근 5년 해외직접투자 추이

(억불, %)

	'06	'07	'08	'09	'10
투자잔액	4,496	5,426	6,803	7409	8,311
GDP 대비	10.3	12.4	13.9	14.6	15.1
투자액	503	735	1,280	747	563
GFCF 대비	4.9	7.3	11.2	7.1	5.1
직접투자수지	-568	-510	-1,036	-628	-575

2. 지역 및 산업별 특징

□ 북미, 유럽 등 선진국 중심 투자에서 아시아 투자로 변화

- '10년말 잔액 기준의 지역별 비중은 북미 31.6%, 유럽 23.3%, 아시아 25.6%, 중남미 12.9%, 대양주 5.3% 등

1) 일본보다 투자잔액이 많은 홍콩, 스위스, 네덜란드는 조세피난처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에 이어 실제로는 5위 수준

- '10년 중 아시아 지역만 7.2% 증가하였으며, 북미 17.2%, 유럽 15.6% 등 이외 지역은 모두 투자가 감소

* '11년 3/4분기 : 유럽 405.1% 증가, 아시아 94.6% 증가

□ 제조업 중심이나 금융보험업 등 비제조업 투자 비중도 높아

- '10년말 잔액 기준의 산업별 비중은 제조업 46.3%, 금융보험업 23.4%, 도소매업 14.0%, 광업 6.3% 등
- '10년은 제조업 45.9% 감소, 금융보험업 26.3%, 도소매업 76.9% 등 주요 업종 대부분이 감소하였으나 통신업은 155.8% 증가

* '11년 3/4분 : 제조업 319.3% 증가, 비제조업 64.6% 증가

3. 해외 사업 현황

□ '11년 해외생산 비중은 35.9%로 역대 최고치 기록

- '01년과 비교하여 해외 생산 비중은 9.6%p 상승하였으며, '14년에는 38.5%까지 상승할 전망

□ '01~'07년까지 현지법인 매출액은 134.9조엔에서 236.2조엔으로 1.8배, 당기순이익은 0.8조엔에서 7.7조엔으로 9.2배 증가

- 금융위기 이후 매출은 '08년 201.7조엔, '09년 165.3조엔으로, 당기순이익은 '08년 4.5조엔, '09년 4.7조엔으로 급감

4. 해외투자 관련 정책

□ 국내 투자 활성화와 해외투자 지원을 동시에 도모

- 국내는 입지여건 완화와 신성장 산업 육성으로, 해외는 인프라 수출, 아시아 볼륨존²⁾ 공략으로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제 성장을 도모한다는 세부 전략 수립

2) 연간 가계 가처분 소득이 5,000~35,000달러인 중산층 8.8억명을 지칭

IV.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1. 추이

□ 점진적인 해외투자 규제 완화 정책 시책

- 대외개방 정책 실시('79~'91년) : 일부 비교 우위를 확보한 분야에서 국영기업 위주로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엄격한 통제
- 경제 자유화 및 시장화('92~'01년) : 해외투자가 경제개발계획에 공식적으로 포함되며, 해외투자 허가 절차 일부 완화
- 해외진출 전략 채택 ('02년~현재) : WTO 가입 이후 '走出去戰略'을 천명하고, 규제 완화 및 지원 시스템 마련

□ '10년말 투자잔액은 2,976억불 수준이며, 경상수지 흑자 누적과 함께 최근 해외투자가 급속히 증가

- '10년말 잔액 기준 순위는 18위이나 '10년 연간 투자액만을 놓고 보면 세계 5위로 급부상
- '00년대 들어 연 평균 29.0%에 달하는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금융 위기 이후로도 증가세를 유지
- 세계 해외직접투자 연간 투자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년 0.1%에 불과하였으나, '10년에는 5.1%까지 상승

중국의 최근 5년 해외직접투자 추이

(억불, %)

	'06	'07	'08	'09	'10
투자잔액	733	958	1,479	2,296	2,976
GDP 대비	2.6	2.8	3.4	4.6	5.1
투자액	212	225	522	565	680
GFCF 대비	1.9	1.6	2.8	2.6	2.6
직접투자수지	516	611	562	385	377

2. 산업 및 지역별 동향

☐ 아시아 중심에서 북미, 유럽, 중남미 등 투자지역 다변화

- '10년말 잔액 기준의 지역별 비중은 아시아 71.9%, 중남미 13.8%, 유럽 5.0%, 아프리카 4.1%, 북미 2.5% 등임.

* 대 홍콩 투자 비중이 62.8%에 달해 실제 비중은 상이할 것으로 추정

- '10년에 유럽 투자는 59.6억 달러로 전년대비 101% 급증하였으며, 북미 72%, 아시아 11.1%, 중남미 43.8% 증가

☐ 서비스, 광업 등 비제조업 중심 투자

- '10년말 잔액 기준의 산업별 비중은 비즈니스 서비스업 30.7%, 광업 14.1%, 도소매업 13.2%, 제조업 5.6%

- '10년 중 비즈니스 서비스업 47.9%, 도소매업 9.7%, 제조업 108.1% 증가하였으며, 광업은 57.2% 감소하여 다소 주춤

* 비즈니스 서비스업 : 무역(또는 상품교역)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서비스, 운송 서비스, 기타 전문 기술 지원 서비스

5. 중국 정부의 해외투자 관련정책 방향

☐ 走出去戰略의 지속 심화 발전

- 2002년 走出去戰略이 정식 경제정책으로 채택된 이래 중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강조

☐ 외환보유고 활용 및 환율 방어

- 중국 정부는 외환보유고의 과다보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

☐ 자원 획득

-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에너지 자원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정상급 외교와 함께 추진

V. 기타 국가

1. 프랑스

□ 금융위기 이후 투자금액 3년 연속 감소

- 2010년에는 841억불 투자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18.3%, 2007년 대비 48.8% 감소한 것임.

프랑스의 최근 5년 해외직접투자 추이

(억불, %)

	'06	'07	'08	'09	'10
투자잔액	16,098	17,948	12,679	16,616	15,230
GDP 대비	70.9	69.0	44.3	62.6	59.1
투자액	1,107	1,643	1,550	1,029	841
GFCF 대비	23.5	29.4	24.8	18.8	15.9
직접투자수지	-388	-680	-909	-689	-502

□ 유럽, 미국 등 대 선진국 금융보험업 투자 중심

- (지역별 잔액 비중) 58.6%는 EU, 26.3%는 기타 선진권 국가 26.3%이며, 개발도상국 등 나머지 국가들이 15.2%를 차지

* 주요 투자국 : 미국, 벨기에, 네덜란드, 영국, 독일

- '10년 중 투자는 EU 30.7% 감소한 반면, 기타 선진국은 8.1%, 개도국 등 나머지 국가는 15.4% 증가

- (산업별 잔액 비중) 금융보험업 29.4%, 제조업 24.6%, 전기·가스 등 7.5%, 도소매업 7.3%, 정보통신 7.5% 등

* 주요 투자 제조업종 : 자동차, 의약, 식음료

- '10년 중 도소매업이 17.8% 증가한 반면, 금융보험업 28.0% 감소, 전기·가스 등 71.5% 감소, 제조업은 마이너스 투자

2. 영국

□ 금융위기 이전 대비 해외직접투자 100% 가까이 급감

○ '10년에는 110억불 투자로 전년대비 75.2% 감소하였으며, '07년과 비교하면 96.0% 감소

- 세계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0년 18.9%, '07년 12.5%에서 '10년에는 0.8%로 지속 감소 추세

* 영국 통계청의 파운드화 기준으로는 '10년 전체 투자금액 6.9% 감소

영국의 최근 5년 해외직접투자 추이

(억불, %)

	'06	'07	'08	'09	'10
투자잔액	14,549	18,356	15,311	16,739	16,893
GDP 대비	59.5	65.3	57.6	77.2	75.3
투자액	863	2,724	1,611	444	110
GFCF 대비	20.6	54.5	36.4	13.9	3.4
직접투자수지	699	-760	-696	268	349

○ (지역별 잔액 비중) 유럽 59.0%, 북미 20.7%이며 아시아 9.6%, 대양주 2.7%, 아프리카 2.9% 등으로 선진국 투자 비중이 높음.

* 주요 투자국 : 미국,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프랑스, 벨기에

- '10년 중 유럽이 25.8% 감소하였고, 아시아는 5.9% 증가, 아프리카는 9.8% 증가

○ (산업별 잔액 비중) 금융보험업이 27.4%, 광업이 15.6%, 정보산업이 12.4%, 제조업이 18.3% 비중을 차지

* 주요 투자 제조업종 : 화학 · 의약 · 고무 · 플라스틱, 운송장비

- '10년 중 금융보험업 67.1% 도소매업 422.0% 증가한 반면, 정보통신업은 63.3%, 제조업은 41.9% 감소

3. 독일

□ 금융위기 이후 해외직접투자 급감

- '10년에는 1,049억불 투자로 전년대비 34.1% 증가하였으나, '07년과 비교하면 38.5% 감소.
- 세계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8년 12.9%에서 '03년 1.0%까지 낮아지기도 하였으며 '10년에는 7.9% 대 기록

독일의 최근 5년 해외직접투자 추이

(억불, %)

	'06	'07	'08	'09	'10
투자잔액	10,813	13,318	13,270	14,183	14,213
GDP 대비	37.0	40.0	36.5	42.6	43.0
투자액	1,187	1,706	771	782	1,049
GFCF 대비	22.3	27.4	11.1	13.2	17.6
직접투자수지	-631	-904	-729	-406	-587

□ 타 선진국 대비 유럽 투자와 제조업 투자가 상대적으로 높음.

- (지역별 잔액 비중) 유럽 72.0%, 북미 17.3%, 아시아 6.4%, 아프리카 0.7% 등으로 유럽 투자 집중도가 크게 높은 편
- '10년 중 유럽 61.7%, 북중남미 25.8%, 아시아 11.5%로 유럽 투자 비중이 줄고 대 아시아 투자를 강화
- (산업별 잔액 비중) 부동산·임대·비즈니스 서비스업 57.8%, 금융보험업 14.6%, 제조업 21.7%

* 주요 투자 제조업종 : 자동차, 화학

- '10년 중 산업별 투자 비중은 제조업 37.0%, 금융보험업 23.5%, 통신 10.6% 등으로 제조업과 금융보험업 투자를 강화

※ 우리나라 투자 현황 및 비교

(억불, %)

	투자 잔액	GDP 대비	투자 금액	GFCF 대비	투자 수지	지역별 비중		산업별 비중	
미국	48,433	15.5	3,289	33.0	-1,007	유럽	55.9	비금융지주	39.4
						중남미	20.8	금융보험	22.7
						아·태	15.6	제조	15.0
						기타	7.7	기타	22.9
영국	16,893	75.3	110	3.4	349	유럽	59.0	금융보험	27.4
						북미	20.7	제조	18.3
						아시아	9.6	광업	15.6
						기타	10.7	기타	38.7
프랑스	15,230	59.1	841	15.9	-502	EU	58.6	금융보험	29.4
						기타선진국	26.3	제조	24.6
						개도국 등	15.2	정보통신	7.5
								기타	38.5
독일	14,213	43.0	1,049	17.6	-587	유럽	72.0	부동산서비스	57.8
						북미	17.3	제조	21.7
						아시아	6.4	금융보험	14.6
						기타	4.3	기타	5.9
일본	8,311	15.1	563	5.1	-575	북미	31.6	제조	46.3
						유럽	23.3	금융보험	23.4
						아시아	25.6	도소매	14
						기타	19.5	기타	16.3
중국	2,976	5.1	680	2.6	377	아시아	71.9	사업서비스	30.7
						중남미	13.8	금융보험	17.4
						유럽	5.0	광업	14.1
						기타	9.3	기타	37.8
한국 ^{주)}	1,390	13.8	192	6.6	-124	아시아	47.4	제조	36.4
						북미	22.0	광업	16.2
						유럽	18.3	도소매	13.9
						기타	12.3	기타	33.5

주 : 한은 기준(순액)이며, 수는 기준(총액)으로는 242억불

VI. 시사점

□ 해외직접투자는 국제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필요

- 기업의 해외진출은 경영상의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것으로 기업 입장에서 성장과 쇠퇴를 결정짓는 불가피한 선택

* 해외투자로 인한 산업공동화는 주로 언론에 의해 인용되는 부정적 개념으로서, 고용, 국내투자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없음.

□ 고부가가치 신성장산업 창출에 중점을 둔 정책 수립 요구

- 저부가가치의 제품 생산의 해외 이전은 국제 분업화로 인해 불가피한 현상으로 향후 성장을 위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경제 구조 전환 필수

□ 신흥국 시장에서 경쟁에 대처

- 주요 국가들이 신흥국 진출을 확대하고 있어 정보 수집과 현지진출 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정책적으로 강화하여 경쟁에 대처할 필요

□ 해외 클러스터를 통한 안정적 공급망 구축

- 주요 지역별로 동반진출한 대·중소기업 클러스터 구축을 지원하여 우리 기업의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

□ 자원개발 등 전략적 지원 강화 및 모니터링

- 일본, 중국의 해외자원개발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자원개발 투자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 도입 효과, 재무건전성 등 요인도 지속적 점검 필요
- 아울러 민·관 공동사업 및 금융·세제 지원 등을 통한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여 해외자원개발 역량을 강화

□ 투자 업종 및 지역의 다변화

- 우리나라는 주요 국가에 비해 투자 업종은 제조업, 투자 지역은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어, 이를 보다 다변화 필요성이 있음.
- 특히 금융기관 해외진출은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 뿐만 아니라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 앞 금융·비금융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 가능하므로 확대할 필요성이 높음.

* 금융보험업 투자 비중 : 한국 8.3%, 미국 22.7%, 일본 23.4%, 중국 17.4%

<참고자료>

국가별 해외투자 지원 기관 및 제도

	주요 지원 기관 및 제도
미국	<p><OPIC : 해외민간투자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 프로젝트 자금 지원 - 정치적 위험 대한 보증·보험 - 펀드 통한 직접 또는 대부 투자
영국	<p><ECGD : 수출신용보증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투자보험 : 개도국 중심, 정치적 위험 보상 <p><UKTI : 영국무역투자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SI(Fiscal Stimulus Initiative) : 주요국 경기부양 사업에 영국기업 참여 지원 - 정보 제공, 자문, 주선 등 비금융서비스 제공
프랑스	<p><OSEO :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 및 보증지원 · 해외 기술협력 파트너쉽 제도
독일	<p><Agaportal(Hermes 참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 투자기업 앞 보증 제공 <p><DEG : 독일투자개발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 투자기업 컨설팅 및 자금 지원
일본	<p><JBIC : 일본정책금융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 현지법인 및 자원개발 사업 중점 지원 - M&A 사업 지원('11년, 외특 회계) <p><JETRO : 일본무역진흥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경제 조사, 분석 및 중소기업 위주 시장개척 지원
중국	<p><Exim China : 중국 수출입은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투자 전용대출 마련('05년) <p><개발은행, 수출신용보험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투자보험(자원개발, M&A, 인프라산업 중점 지원) <p>※ 투자공사(국부펀드) 통한 직접투자</p>
한국	<p><KEXIM : 한국수출입은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투자 자금지원 (자원개발, M&A, 녹색 중점 지원) <p><K-Sure : 한국무역보험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투자 보증 지원 <p><KOTRA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경제 조사, 분석 및 중소기업 위주 시장개척 지원